

# 학 바뀐 환경, 학교가 즐거워요

광주시 교육청 '실력 광주 주춧돌' 학교 현대화 사업 성과

올 217교 냉·난방 시설 교체 등 3년간 6,300억원 투입

수능 준비에 한창인 광주 경신여고 윤현진(경신여고 3년)양은 요즘 집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즐겁다.

현진양의 반 교실은 날씨가 덥거나 습하면 최신형 천장 에어컨이, 공기가 탁하면 공기 청정기가 작동된다. 책·걸상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가능성 제품이다.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도 여느 특급 호텔 못지 않다.

현진양은 "상쾌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어 성적도 더 잘 오르는 것 같다"며 "공부에 치중된 3생들에게 여름 무더위가 가장 큰 장애물인데, 무난히 넘어갔다. 친구들도 집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한다"며 활짝 웃었다.

이 학교 남동우 교장은 "지난해만 해도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에어컨이 자주 고장나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올해엔 환경이 평화롭게 변해 아이들의 학습 태도도 매우 좋아졌다"면서 "좋은 교육환경이 좋은 성적을 만들어 낸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광주경신여고 3학년 학생들이 수능 고득점을 위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 제공>

전남대-BM생명공학研-전대병원-전남테크노파크

## 천연물 의료융합기술 사업화 협약

대학과 기업이 함께 눈 피로 해소, 주름 살 제거, 관절염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 의료융합 상품 개발에 나섰다.

전남대 산학협력단(단장 남재준)은

BM생명공학연구소주식회사(대표이사 김희구), 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영진),

용식물의 재배 및 유통을 포함한 사업화

▲ 천연물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 광(光) 의료기기 연구개발 상품화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공동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눈의 피로를 신속하게 풀어주는 '아이플러스알파'의 사업화가 속력을 넣을 전망이다. BM생명공학연구소는 전남대 의대 이지범 교수, 윤경철 교수, 화학과 박현령 교수와 함께 경피투여 약물전달시스템과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을 융합해 '아이플러스알파'를 개발했다. <채희종기자 chae@

## 광주·전남 대학 탐방

② 조선대학교 신설 학과

조선대학교는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서 미래지향적 우수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지방대학 위기설이 대두되는 분위기 속에 조선대는 파격적인 장학혜택과 수요자 중심의 학사운영을 통해 호남 지역의 명문사학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하고 있다. 조선대는 2009학년도부터 'CU LEADER 장학금' 및 영

어 심화학습 프로그램인 ESL 수업을 우수 신입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지도교수의 1대 1 관리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대학 1학년 생활을 '고등학교 4학년' 생활로 표현하고 있다. 조선대학교가 2009학년도부터 신설한 선도학과는 기초의과학부, 글로벌법학과, 자유전공학부로 이를 학과는 조선대의 명품인재 육성의 중추학과로 발돋움하고 있다.

## 기초의과학부 생명공학 연구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법학과 소수 정예 로스쿨 진학 코스

## 자유전공학부 적성·소질 탐색 후 전공 선택

◇ 기초의과학부=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6년제 약학대학에 진학하거나 연구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신설한 독립학부이다.

의과학 분야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장래 의과학 분야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생명공학 연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취업 및 진로분야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 진학자도 및 의료행정가, 생명공학 관련 분야 연구자 또는 바이오 산업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다. 기초의과학부의 가장 큰 장점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의치약 학교육입문시험 대비 교육과정을 편성해 의·생명과학에 폭넓은 기본지식을 학습한다. 2009학년도 신입생 80% 이상이 CU LEADER 장학생으로서 학생들의 자부심 및 대학 수업의 민족도가 높다. 또한 조선대학교는 의·치의학 전문

대학원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연차별 확대해 전학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글로벌법학과=글로벌 마인드와 리걸 마인드를 결합한 미래 선도형 리더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법과대학에 신설한 특별법학과이다. 글로벌법학과인 만큼 해외 경영의 기회가 주어지며 소수정예의 최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단순한 법학 지식의 전공 나열이 아닌 법조 트랙과 국제화 트랙으로 구분해 교수진의 1대 1 책임지도 하에 전문적인 학사공부로스를 전학에 앞장서고 있다.

조선대는 법학 최고 수준의 실무교수진 확보는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의 법학 전용 도서관 및 최첨단 시설의 전용 기숙사형 고시원 '황금주관'을 무료로 운영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북돋우고 있다.



조선대 글로벌법학과 1학년생들이 법과대학 내 모의법정에서 법복을 입은 채 실습 후 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내·외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으며, 2016년까지 시행되는 사법시험에 계속 도전할 수 있다. 또한 졸업생들은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경찰간부직시험 등을 통해 고위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국제화 트랙의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국제기구, 민간부문 국제협력분야, 국내진출 외국계 기업체, 해외진출 국내 기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 자유전공학부=학생들이 특정한 학과(부)를 미리 정하지 않고 입학해 1학기 동안 지도교수와 함께 적성과 소질에 가장 적합한 전공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탐색한 후 2학기 중에 전공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한후 소속 전공에서의 성취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학부이다.

가장 큰 특성은 인문 계열과 자연계열의 계열 구분 없이 매년 50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1명의 지도교수가 10명의 학

생을 지도하는 책임지도교수를 철저히 실시한다.

자칫 학사관리에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해 ESL(원어민이 진행하는 집중적인 영어수업)을 제공해 주당 15시간 수업인 ESL1과 ESL2를 각각 1학기와 2학기에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하여 원어민 수준의 영어구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희망하는 전공 중심으로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해 전공탐색의 기회를 갖는다. 전공 선택은 2학기 중에 희망신청을 3지망까지 받아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오기 전까지 몰랐던 자신의 희망전공을 알아가며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폭넓게 전공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유전공학부의 가장 큰 매력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대한민국 대학교육 혁신의 새길

## 전남대학교

# 연기/남녀로 민원고통 YHB가 해결

## 연기/남녀로 민원고통 YHB가 해결

# 연기/남녀로 민원고통 YHB가 해결

## 연기/남녀로 민원고통 YHB가 해결

# 연기/남녀로 민원고통 YHB가 해결

## 연기/남녀로 민원고통 YHB가 해결